

글·조사 : 편집부

# 2009 오리사육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 :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오리사육업 종사자 169명
2. 조사일시 : 지회별 교육시

12월에 경기, 충남·북, 전남·북 5개 시·군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오리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육업 종사자 169명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 반영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사육업 종사자들의 일반 현황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모색도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국의 사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협회의 사업 방향과 정부의 오리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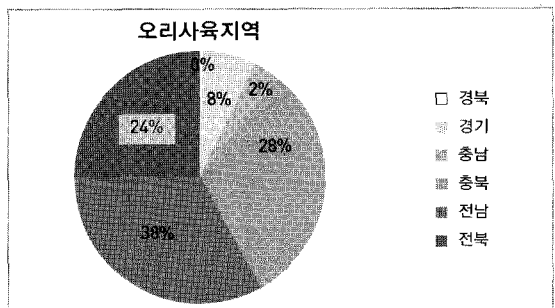
한편, 조사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축사 소독이나 사양관리 기록부 작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사육관리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형 간이 축사가 7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 올인 올아웃 방식 대신 순환입식을 실시하고 있어, 방역 관련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향후 오리산업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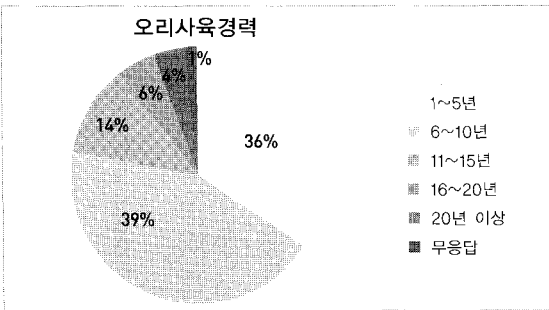
## 1. 오리사육 지역과 사육경력?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명수	13	3	47	65	40	1
비율	8%	2%	28%	38%	24%	0%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안성, 이천, 포천, 화성 등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남은 영암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 보성, 장흥과 고흥, 함평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강진, 구례, 영암, 함평 등의 답변도 있었다. 전북의 경우 남원이 20명, 고창과 김제가 5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이외 입실, 장수, 부안에서 사육하고 있었고, 충남은 천안, 충북은 음성과 진천에서 사육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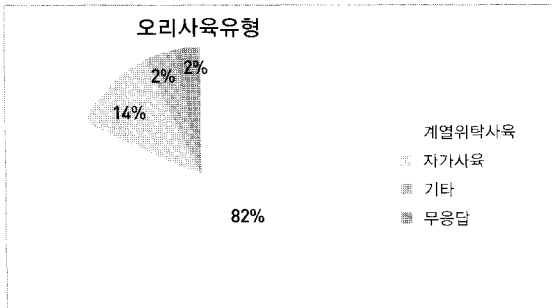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무응답
명수	61	66	24	9	7	2
비율	36%	39%	14%	6%	4%	1%



오리 사육 경력은 1~5년과 6~10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응답자의 평균은 8.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오리사육 유형은?

	계열위탁사육	자가사육	기타	무응답
명수	139	24	3	3
비율	82%	14%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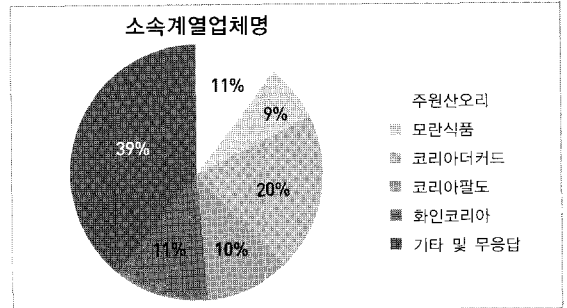


오리사육 유형은 응답자의 82%에 해당하는 139명이 계열위탁사육을 한다고 답했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사육인조합과의 공동사육 등이 있었다.

## 3. 소속계열업체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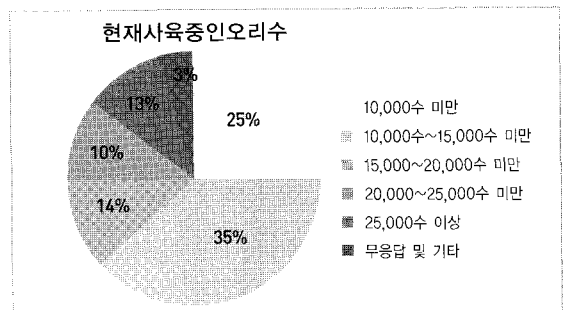
	모란식품	주원산 오리	코리아 더커드	코리아 팔도	화인 코리아	기타 및 무응답
명수	13	16	29	14	15	55
비율	9%	11%	20%	10%	11%	39%



계열위탁사육을 한다는 응답자들의 소속계열업체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은 코리아팔도와 화인코리아가 14명,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지역은 코리아더커드가 26명으로 전북 전체 응답자의 70%를 차지했다. 충북에는 모란식품과 주원산오리가 각각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정다운, 신선산오리, 신선자연오리 등이 있었다.

## 4. 현재 사육중인 오리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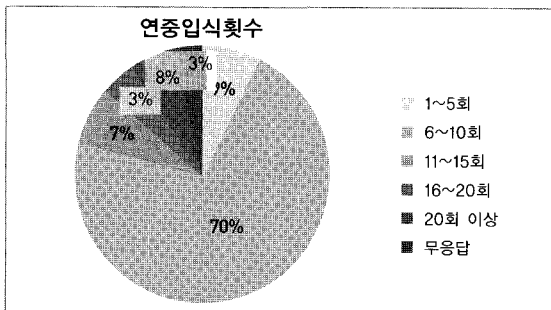
	10,000 수 미만	10,000 ~ 15,000 수 미만	15,000 ~ 20,000 수 미만	20,000 ~ 25,000 수 미만	25,000 수 이상	기타 및 무응답
명수	42	60	23	17	22	5
비율	25%	35%	14%	10%	13%	3%



20,000수 미만을 사육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4%(125명)에 달했으며, 이중 10,000수 이상 15,000수 미만 사육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평균 17,204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연중 입식횟수는?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0회 이상	무응답
명수	15	119	12	5	14	6
비율	9%	70%	7%	3%	8%	3%



연중 입식횟수는 6~10회 라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차지했고, 6회를 입식한다는 응답자가 4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0회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사료는 어느 회사제품을 이용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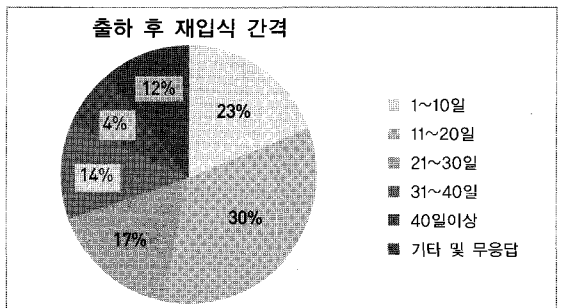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료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충북 지역에서는 나람사료, 퓨리나, 동아사료, 천하제일을 전남에서는 우리사료와 서울사료, 대원사료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의 농가들은 나농사료와 무지개사료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고, 경기 지역에서는 팜스코와 흥성사료의 이용율이 높았다.

### 7. 현재 사육수수 기준시 1회전당 오리 사료 소비량은?

집계된 수치를 모두 사육수수 10,000수로 변환하여 1회전당 오리 사료 소비량을 계산해본 결과 10,000수 사육시 평균 사료 62톤이 소비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설문지 응답자 중 1수당 출하시까지 사료소비량으로 기재한 내용을 평균하여 보니 수당 사료 소비량은 7.16kg인 것으로 나타났다.

### 8. 오리 출하 후 재입식까지의 간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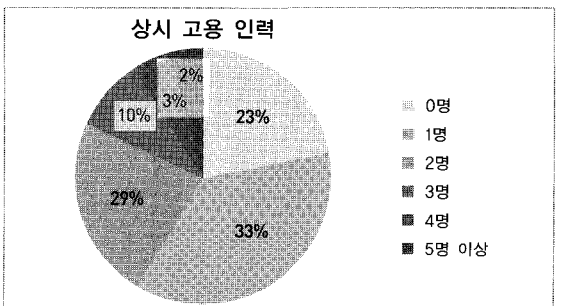
	1~10일	11~20일	21~30일	31~40일	40일 이상	기타 및 무응답
명수	39	51	28	24	7	21
비율	23%	30%	17%	14%	4%	12%



출하 후 재입식 간격에 대해서는 11~20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15일이 2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일 안으로 재입식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 9. 상시 고용 인력 인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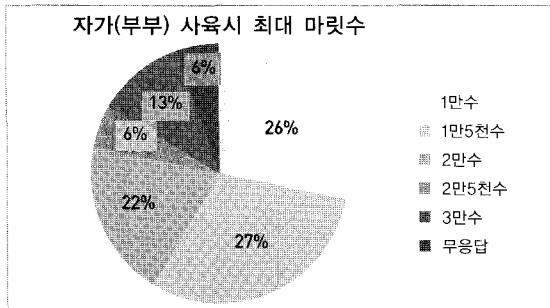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명수	39	56	49	17	4	4
비율	23%	33%	29%	10%	3%	2%



농장 상시 고용인력이 1명이라는 응답이 33%(56명)을 차지하면서 2명 이하라는 답변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사육한다는 응답자는 39명이었고, 평균 상시 고용 인력은 1.88명이었다.

### 10. 자가(부부) 노력만으로 사육가능한 최대 마릿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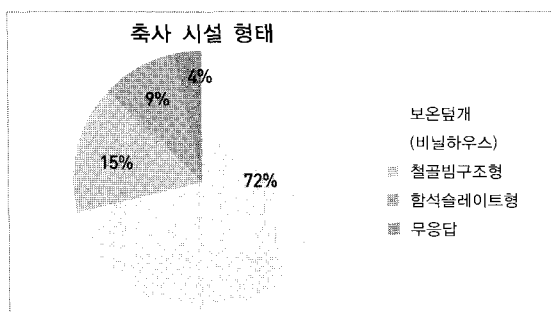
	1만수	1만5천수	2만수	2만5천수	3만수	무응답
명수	45	45	37	10	22	10
비율	26%	27%	22%	6%	13%	6%



설문 응답자들의 75%(127명)는 자가 사육시 2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수와 1만 5천수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45명이었다.

### 11. 현재 오리 축사 시설 형태는 어떤 종류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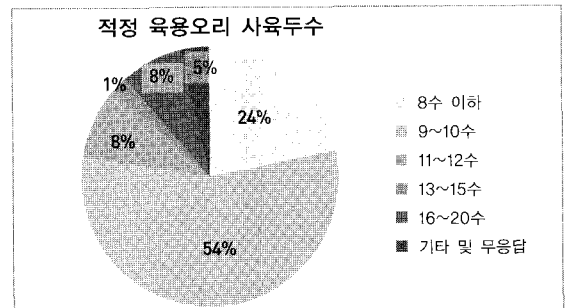
	보온덮개형 (비닐하우스)	철골빔구조형 (백관, 허빔)	함석슬레이트형	무응답
명수	125	26	16	6
비율	72%	15%	9%	4%



축사 시설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보온덮개(비닐하우스)가 72%(125명)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철골빔과 함석슬레이트형 축사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충북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당 육용오리 사육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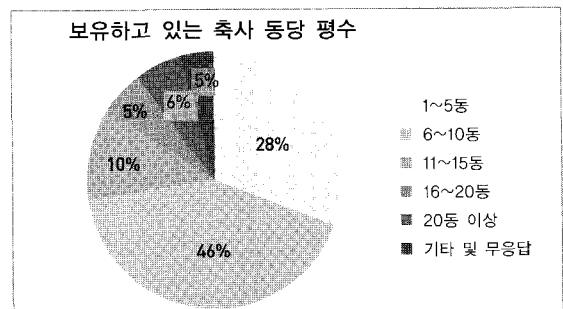
	8수 이하	9~10수	11~12수	13~15수	16~20수	기타 및 무응답
명수	9	39	89	14	1	13
비율	5%	24%	54%	8%	1%	8%



적정 육용오리 사육두수는 54%(89명)가 11~12수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9~10수라는 응답이 24%를 차지했다.

### 13. 보유하고 있는 축사 동수는?

	1~5동	6~10동	11~15동	16~20동	20동 이상	기타 및 무응답
명수	47	79	17	8	10	9
비율	28%	46%	10%	5%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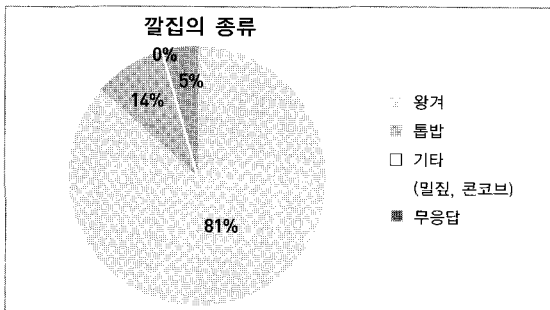


응답자 79명(46%)은 축사를 6~10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동을 보유했다는 답변이 28건

으로 가장 높았다고 전체적으로 1~10동이라는 답변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현재 사용하고 있는 깔짚의 종류는?

	왕겨	톱밥	기타(밀짚, 콘코브 등)	무응답
명수	143	25	0	8
비율	81%	14%	0%	5%



사용하는 깔짚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81%(143명)가 왕겨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톱밥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4%(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 깔짚의 교체시기는?

깔짚 교체는 3개월 이전에 한다는 답변이 39명, 4~6개월과 7~12개월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7명, 30명이었으며, 매일 혹은 격일로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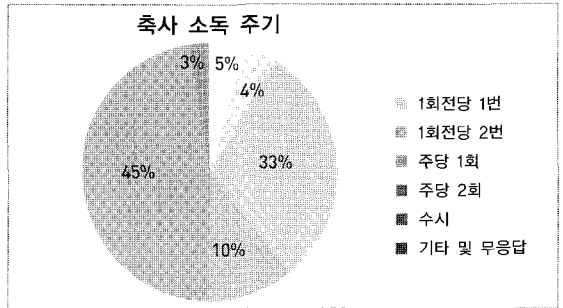
### 16. 깔짚 절감을 위한 방안은?

응답자들은 발효제 투여와 로터리 작업, 환기를 통해 깔짚을 절감한다고 하였으며, 이외 물받이를 설치하거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17. 축사 소독 주기는?

축사 소독은 수시로 한다는 답변이 45%(79명)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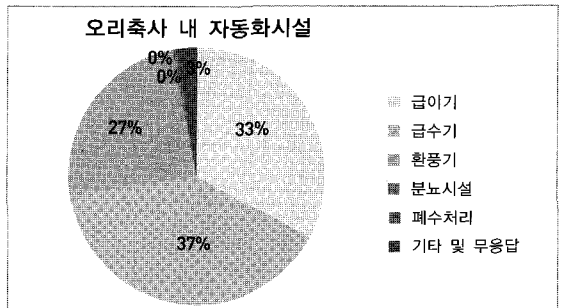
	1회전당 1번	1회전당 2번	주당 1회	주당 2회	수시	기타 및 무응답
명수	9	7	59	17	79	5
비율	5%	4%	33%	10%	45%	5%



하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당 1회 한다는 답변이 많아 사육농가에서 소독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 오리 축사 내 자동화시설은?

	급이기	급수기	환풍기	분뇨시설	폐수처리	기타 및 무응답
명수	130	145	103	1	1	12
비율	33%	37%	27%	0%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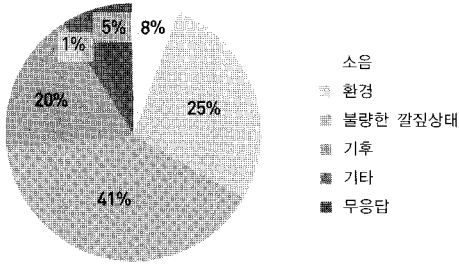
축사 내 자동화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급이기, 급수기, 환풍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이 97%에 달했으며, 3가지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6%(1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열관리시설, 천장개폐기 등이 있었다.

### 19. 오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량한 깔짚 상태가 오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소음	환경	불량한 잡질 상태	기후	기타	무응답
명수	17	55	92	45	3	11
비율	8%	25%	41%	20%	1%	5%

오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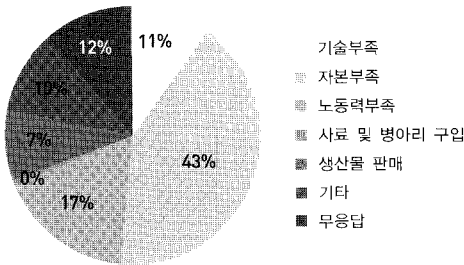


으로 작용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1%(92명)에 달했으며, 환경과 기후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25%, 20%인 것으로 나타났고, 밀사나 동물침입 등의 기타 답변들도 나왔다.

## 20. 현재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 부족	자본 부족	노동력 부족	사료 및 병아리 구입	생산물 판매	기타	무응답
명수	21	84	33	0	15	19	23
비율	11%	43%	17%	0%	7%	10%	12%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



오리사육업 종사자들에게 자본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전체 답변의 43%(84명)에 달했으며, 노동력 부족과 기술 부족이라는 응답자가 뒤를 이었다.

## 21. 오리사양관리를 기록하고 있는지?

	기록을 한다	하지 않는다	기타	무응답
명수	145	14	2	3
비율	88%	9%	1%	2%

오리사양관리 기록 여부



오리사양관리 기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8%(145명)가 기록을 한다고 답해 과거에 비해 보다 철저한 농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응답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소비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위탁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위탁업체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교육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